

최근 일본의 카메라 및 렌즈 동향

1. 신규격 APS의 등장

APS방식이 지난해 2월 일본에서 일제히 발표되어 봄철 「사진축제」에서 아주 화려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콤팩트타입의 카메라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또한 현재의 시스템과의 차이를 알기 힘들어 어딘가 한곳이 빈듯한 상황이었다. APS메이커들도 이러한 현상을 느끼고 있는듯 했으며, 단발성 대타자가 만루 홈런이 아니라 우선은 서전을 판망하는 듯한 이미지였다.

현행 35mm컬러필름의 수요가 압도적인 가운데,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35mm 필름의 화질에 대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에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35mm를 APS로 당장 바꿔치기 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이러한 분위기를 APS 관련메이커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미니랩체제의 APS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갖춰지면 'APS제품이 35mm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이 불식될 것이고 그러면 기존의 35mm시스템과 조건이 같아질 것 같으나, 이렇게 되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 하이그레이드기종의 수요 증가

'95년에 이어 '96년 일본에서 발표된 카메라 신기종수는 적었다. 다음의 (표-1)은 '96년도 일본 「사진공업」 1월호에서 12월호까지의 '신제품 뉴스'란에 게재된 35mm 및 APS카메라 일람표이다.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난해 35mm카메라는 총 23대가 출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메이커들이 35mm 콤팩트기종을 APS기종으로 대체해 출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35mm SLR은 4기종이 그리고 콤팩트타입은 19대가 새로이 출시되었으며, 대부분의 신제품은 APS기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카메라 판매가 계속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현

재 일본에서는 1가구 1대에서 1인 1대로 카메라 보급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는 교체 및 신규 수요를 주요 타겟으로 해야할 것이며, APS의 등장배경도 이런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35mm 카메라 신제품이 적게 출시된 가운데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CONTAX AX'와 최고급기 AF SLR인 'NIKON F5' 그리고 하이 그레이드인 콤팩트타입의 카메라 'MINOLTA TC-1', 'CONTAX G2', 'RICOH GR1'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CONTAX'는 AF화가 안된 MF의 아성을 지키는 SLR시스템이라 여겨지고 있었으나 'CONTAX AX'는 교묘한 테크닉을 사용한 AF SLR 카메라이다.

SLR카메라의 AF화는 렌즈 계열의 재구성이 필요, 종전 시스템과의 관련성이 커다란 과제이다. 하지만 렌즈계열은 종전 그대로이며 바디에 AF구동메카니즘을 채용한 유니크한 AF SLR이 'CONTAX



해 의 리 포 트

(표 1) 일본 「사진공업」 '96년 1~12월호에 게재된 일본산 소형카메라 신제품(색상·기념버전 추가는 제외)

계재호	35mm 카메라		APS 카메라		합계
	SLR	컴팩트기종	SLR 타입	컴팩트기종	
1월호		KYOCERA LYNX 120 KONICA Z-up 70			2대
2월호					0대
3월호	CONTAX AX	MINOLTA TC-1 PENTAX ESPIO 160 PENTAX ESPIO 80-E	MINOLTA-VECTIS S-1 FUJI EPION 4000	FUJI EPION 300Z FUJI EPION 250Z FUJI EPION 100 FUJI EPION 10 MINOLTA VECTIS 40 MINOLTA VECTIS 25 MINOLTA VECTIS 20 MINOLTA VECTIS UC NIKON NUVIS 125i NIKON NUVIS 75i NIKON NUVIS mini i KYOCERA ULTIMA 200 KYOCERA ULTIMA 100 GOKO AP-75 AF/65UF GOKO AP-55 AF/25UF	21대
4월호		PENTAX ESPIO 115M CANON AUTOBOY S II CANON AUTOBOY F-XL OLYMPUS OZ76 ZOOM OLYMPUS TRIP AF31 OLYMPUS TRIP 300 OLYMPUS TRIP XB3 OLYMPUS SHOT & GO R	CANON EOS IX E	KONICA BM-S630Z KONICA BM-S100 CANON IXY CANON IXY G CANON IXY 20 CANON IXY 10	15대
5월호		KYOCERA CAMPUS 70			1대
6월호					0대
7월호	PENTAX MZ-10		OLYMPUS CENTURION		2대
8월호	NIKON F5			KONICA Smini	2대
9월호	CANON New EOSKiss	KONICA Z-up 140 SUPER		FUJI EPION 200Z	3대
10월호		CONTAX G2 RICOH GR1	NIKON PRONEA 600i	KYOCERA ULTIMA 300	4대
11월호		OLYMPUS OZ CLASSY 105 KONICA Z-up 110 Super		OLYMPUS NEWPIC ZOOM 60	3대
12월호				MINOLTA VECTIS 30	1대
합계	4대	19대	5대	26대	54대
		23대		31대	



AX'이다.

또한 'CONTAX AX'는 MF로 족해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면서도 AF를 선호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ZEISS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AF SLR로 만든 바디 교환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AF SLR의 흐름을 타고 일찍부터 등장한 KYOCERA AF SLR과는 개념이 전혀 다른 카메라이다.

'NIKON F5'는 AF SLR 카메라의 최고급 신기종으로 애틀랜타 올림픽을 겨냥, 사진기자들을 메인타겟으로 한 것으로 견고한 바디와 메카니즘, AF의 고속화 실현, 피사체의 색상정보 AE측광의 채용 등이 주요 특징이랄 수 있다. 동시에 NIKON은 AF의 고속화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AF구동 초음파모터를 렌즈에 내장시킨 초망원대구경렌즈도 개발했다.

APS에 개발력을 빼앗긴 콤팩트 타입의 카메라 신제품중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으나 하이그레йд라 일컬어지는 고성능의 카메라가 3대 등장했는데, 이 중에는 'MINOLTA TC-1', 'CONTAX G2', 'RICOH GR1'이 있다.

'MINOLTA TC-1'은 외관에 티탄소재를 사용, 최소형으로 설계된 것이 큰 특징이다. 다기능플라스틱바디에 익숙해

진 소비자들에게 MINOLTA TC-1은 외관 소재로 티탄을 채용, 비늘을 씻겨낸듯한 산뜻한 이미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CONTAX G2'는 기존기종을 버전 업시킨 카메라로 렌즈 교환이 가능한 소형 메탈바디의 하이그레йд기종이다.

'RICON GR1'은 '94년에 출시된 단초점렌즈가 부착된 전자동카메라 R1의 하이그레йд 버전이라 할 수 있다. 'RICOH R1'은 초소형 슬림 설계와 뛰어난 디자인을 인정받아 히트상품이 되었다.

이상의 하이그레йд기종은 가격이 비교적 비싸기 때문에 아직 날개 돋힌듯이 팔리지는 않지만, 주문에 미처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APS 특징 회박

APS는 그 특징이 불명료한 부분이 있으며 또한 35mm제품에 비해 장점이 그리 충분치가 않다.

따라서 관련메이커들의 APS와 35mm 카메라에 대한 대처가 향후 사진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필름과 APS필름의 사진현상비 차이가 일반인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APS향방을 좌우하는 주요 키

가 될 것으로 보인다.

'96년 일본 「사진공업」지에 등장한 35mm와 APS카메라 신기종은 총 54대 였는데, 이 중 APS카메라가 50% 이상인 31대이었으며 SLR카메라는 5대 그리고 나머지는 단초점 및 줌기종의 보급기로서 저가품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새로이 출시한 APS 신기종은 크기와 디자인면에서 35mm 카메라와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지난해 미놀타, 캐논, 니콘에서는 본격적인 의미의 SLR기종을 선보였는데, 이들 각사가 각각 다른 개념을 도입해 공통점이 없다는 것이 흥미롭다 하겠다.

'MINOLTA VECTIS S-1'은 종전 a와는 전의 다른 시스템으로 렌즈의 호환성은 없고 외관상으로는 SLR기종으로 볼 수 없는 박스형의 디자인이다. 또한 이 제품은 APS의 독점적인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고 콤팩트타입과는 한획을 긋는 개념을 지녀 현행 SLR기종과 동등한 성격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CANON EOS IXE'는 이름 그대로 CANON EOS시리즈의 APS SLR바디의 카메라이다. 이는 바디교환이라는 인상으로 렌즈마운트는 공통이며 AF방식이 렌즈내 구동인 특징을 살리고 있다.



또한 'CANON EOS IXE'는 독특한 디자인과 함께 EOS 렌즈에는 없었던 24~85mm 표준줌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초소형 설계의 APS 줌기종인 IXY개념과 같은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카메라라 하겠다.

'NIKON PRONEA 600i'는 전통적인 F마운트를 답습한 APS카메라로 정면에서 보면 실로 NIKON의 AF SLR 다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컴팩트타입의 APS 카메라는 단초점기, 2배줌, 3배줌기로 구성, 생산하고 있는 메이커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CANON IXY'라 하겠다. 대부분의 컴팩트 APS카메라는 별 특징이 없는 평범한 디자인으로 35mm카메라와 구분하기 힘들다 'CANON IXY'는 이색적인 디자인 개념을 도입, 예상 밖으로 주문량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 고배율 AF 줌렌즈의 보급

수년 전에 TAMRON이 AF 고배율 줌렌즈 28~200mm를 올인원(ALL IN ONE)렌즈로 발표하고 게다가 초망원측에 연속되는 200~400mm를 투입시켰다. 이것이 히트하자 TOKINA은 28~210mm, 80~400mm을 그리고 SIGMA는 28~200mm, 135~400mm 등을 출시, AF SLR의 파수꾼 렌즈로서 표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모두가 비구면렌즈 및 APO 사양으로 고화질화 되어있고 TAMRON에서는 제2세대로서 근접거리의 단축, 컴팩트화 등 버전 업시킨 28~200mm를 투입시키고 있다.

또한 TAMRON은 90mm 매크로를 등배타입으로 부활시키고 SIGMA는 망원매크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카메라메이커들은 고배율 줌렌즈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 'CANON EF 35~

350mm'는 이와는 격이 다르지만, MINOLTA에는 100~400mm가 있고 NIKON은 고배율 표준역(標準域) 줌인 'AiAF ZOOM NIKOR 24~120mm'를 지난 가을에 출시했다.

5. 디자인과 콤팩트화가 구매결정의 주요인

요즘의 카메라는 예전과는 달리 성능은 문제된 것이 없다. 대신 요즘의 소비자들은 '멋있는 디자인'과 '컴팩트한 것'들을 주요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최근의 히트카메라들은 멋진 디자인과 컴팩트화를 잘 조화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CONTAX T시리즈', 'NIKON F시리즈', 'RICOH RI', 'MINOLTA TC-1', CANON IXY 등이 디자인과 콤팩트화를 잘 조화시킨 제품이라 할 수 있다.

* 참조) 일본 「사진공업」 '96년 12월호



최근 일본의 사진 감광재료 동향

'95년에는 컬러필름의 개발 경쟁이 매듭 지워진 해로서 예년에 비해 새로이 출시된 필름 수가 적었다. 또한 지난해 각 필름메이커들은 APS용 필름을 새로이 출시함과 동시에 35mm, 브로니필름(120mm)의 신제품도 상당수 발표했다.

최근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컬러 롤필름의 소비량이 연간 10% 정도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진시장이 포화상태인 현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대단한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디지털카메라의 고성능화와 저가화가 본격화되고 있고, 또한 화상정보가 다양화되고 있어 필름메이커들의 노력만으로는 필름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세상이 떠들석할만큼 디지털카메라 보급이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입출력은 사진감광재를 사용하고 처리는 컴퓨터로 한다'는 사용자들의 제품 사용구분도 정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4월에 APS제품이 새로이 출시되

었다.

APS용 카메라의 성능이 아직 약간 미흡함에도 APS용 필름의 성능이 뛰어나 35mm 풀사이즈의 필름에서 인화한 것에 결코 뒤지지않는 화질을 APS필름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매 후 1년이 지난 지금 APS제품의 보급은 아직 그다지 신장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필름의 원터치 장전과, 일반 자기테입의 1/300 정도의 밀도를 가진 자기층에 의한 데이터통신기능 등을 지닌 APS용 필름은 각 메이커에서 본격적으로 APS SLR카메라를 차례차례 출시하고 있고 또한 APS시장에 많은 업체들의 참여가 증가하는 등 주변환경이 정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의 활성화는 이제부터 본격화되리라 본다.

지난해에는 컬러 리버설필름, 컬러 네가티브필름 등 주목할만한 제품들이 많이 등장했다.

컬러 네가티브필름부문에서는 후지사진 필름의 '리얼라'가 '리얼라 에이스'로 고성능화되

고, 코닥, 코니카에서도 하이그레이드 필름 'MIYABI', 코니카 '컬러 160PS'를 각각 새로이 출시했다.

지난해 새로이 발표된 필름, 인화지는 다음(표-1)과 같다.

컬러 리버설필름에서는 코닥이 발표한 '엑타크롬 다이아나 100EX'를 위시한 다이아나시리즈, '엑타크롬 프로페셔널 E100S', 온화한 색계열인 'E100SW'가 엑타크롬 EPR로 대표되는 듯한 畫調로써 색포화도(色飽和度)가 그다지 높지않고 자연스런 색조로 재현, 종래 코닥이 주장해온 설계사상(設計思想)으로 복귀했다.

또한 코니카의 森羅100 하이그레이드도 엑타필름과 같은 종류로 리얼한 색 재현을 실현한 필름으로 필름 선택의 폭을 넓혀 주었다.

한편, 아마추어들 사이에서 리버설필름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APS용 리버설필름을 처음부터 출시하지 않은 것은 필름 메이커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것이라 본다.



개 외 리 포 트

(표 1) '96년도에 새로이 발매된 필름, 인화지

구분	필름명
컬러 리버설 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니카크롬 森羅100 하이그레이드 • 액타크롬 다이아 100EX • 코닥액타크롬 E100 • 후지크롬 듀프리카이팅필름 CUD TYPE II
컬러 네가티브 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닥 MIYABI 프로페셔널 • 코니카 컬러 JX 100 • 후지컬러 수퍼 V100 • 후지컬러 리얼라 에이스 • 코니카 컬러 프로페셔널 160PS • 후지 리얼라 에이스브로니 • 코닥 MIYABI 400 프로페셔널 • 코니카 컬러 LV 400 프로페셔널 120사이즈 • APS컬러 네가티브 필름 7종(후지 넥시아 F.A.N, 코닥 어드밴티스 100, 200, 400, 코니카 JX 400)
렌즈부착필름 (일회용 카메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니카 초미니 • 코닥 스냅키즈 EX롱플래시 • 후지 컬러 New 우쓰룬테스 에이스 • 코니카 Film IN BLACK & WHITE • 후지 필름 우쓰룬테스 블랙 앤 화이트
흑백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포드 100/400 델타프로페셔널 • 후지 네오판 100 프레스토 • 오리판 400필름
흑백인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지 부로바리그레이드 WP • 코닥 폴리맥스 II RC 페이퍼 • 오리엔탈 뉴 시갈 G

고품질의 APS 필름

새로이 출시된 APS필름의 성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는 '사진유제기술에 한계가 없다'는 점을 다시금 알리고 일깨워준듯한 제품이라 하겠다.

APS용 필름을 통해 할로젠화 은결정의 기본인 결정이론이 해명되고 있어 필름설계시 감도, 입상, 현상효율 등의 조절정도가 큰 폭으로 향상되었

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하겠다.

또한 APS필름 사진유제 입자의 미세화는 CCD의 고화소화(高畫素化)보다도 빠르게 달성된듯 하며, 하프사이즈판의 필름 면적으로 35mm 풀사이즈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화질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S용 필름 설계에 투입된 기술은 35mm필름에도 전용이 가능하므로 향후 35mm 컬러 네가티브필름 신제품에도 기대를

걸어 볼만하다.

최근 새로이 인기를 얻고 있는 흑백필름

코니카의 흑백 일회용필름(Film IN BLACK & WHITE)이 뜻밖에 인기를 누리며 따라타사들도 뒤이어 흑백필름 시장 참여에 신경을 쓰고 있다.

최근 30년 동안 흑백사진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자취를 감춰 지금의 젊은이들

은 흑백사진을 잘 모른다. 그래서 흑백필름을 희귀한 것으로 여겨, 요즘 새로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출시된 흑백필름중 주목할만한 제품은 후지사진 필름의 '네오판 100 프레스토'일 것이다. 이 제품은 입상이 작아 조적이 잘 드러나며 선명도면에서 사진의 품질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아직 테스트를 해보지 않아 성능에 대한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오리엔탈의 흑백 필름 '오리판 400' 필름이 발매된 것도 기대되는 바이다.

지난해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컬러리버설과 네가티브필름이 리얼한 색 재현을 지향하며 새로이 출시되었고, 또한 흑백사진이 부활되어 영상에 있어서 상태재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좋은 찬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흑백사진과 관련한 신간서적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흑백사진의 부활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가볍게 간주해 버릴 것이 아니라 본다.

영상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확실한 계조(階調)를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흑백사진을 많이 다루어보는 것이 좋으리라 본다.

* 참조) 일본 「사진공업」 '96년 12월호



에 워 리 포 트

캐논, 중국 광둥에 카메라 합작사 설립

캐논은 중국 현지에서 새로운 카메라 생산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캐논의 네번째 해외생산공장이며, 첫번째 합작사인 중국 광둥의 카메라공장은 연내에 완공될 예정이다.

캐논은 지금까지 저가 35mm와 APS카메라를 중국의 Ehuai와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해왔는데, 연내 광둥에 새로이 설립될 공장은 '광둥광학기기사'로 불리워질 예정이다.

한편, 캐논은 합작사로 설립되는 광둥공장에 51%의 지분을 투자할 것이며, 월 2만 5천대에서 3만대의 카메라를 생산할 것으로 전했다.

또한 캐논은 현재, 고가의 SLR과 LS카메라는 큐슈 소재 OHITA공장에서 생산하며, 보급형 SLRS와 APS카메라 (IXY)는 타이완캐논에서 그리고 저가의 LS카메라는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캐논은 APS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를 포함한 35mm 카메라 생산라인을 1백퍼센트 가동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에 APS 카메라 'IXY' 생산라인을 타이완으로 이전, 생산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니콘, 중국 Harbin에 서비스센터 오픈

니콘은 지난 3월 1일, 중국 Harbin에 새 서비스센터를 오픈했다. 지난 '92년 10월 최초로 중국 광둥에 서비스센터를 오픈한 니콘은 '93년에는 상하이, '94년에는 베이징 그리고 '95년에는 청주에 서비스센터를 설치, 중국의 니콘카메라 소비자들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지난 몇년간 니콘의 카메라 판매량의 괄목할만하게 신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국 카메라생산량 대량 증가

지난해 중국의 카메라 생산량은 4천 5백만대를 기록, '95년 대비 35%의 신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신장은 중국정부의 밀수품에 대한 강한 조치의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중국의 카메라산업은 점증하는 밀수품에 의해 큰 타격을 입을 정도로 불법수입 카메라가 전체 유통물량의 80%를 차지해왔으나, 지난해 중국 정부가 카메라 밀수입자에 대한 강한 세금 부과와 수입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체카메라시장의 80% 점하던 불법수입카메라가 30%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코니카, 새로운 컬러필름공장 설립 추진

-5~7백억엔 투입, 2천년 완공예정-

코리카는 내년에 일본 호카이도 내지는 큐슈지방에 컬러필름공장을 새로이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경의 Hino와 카나가와의 오다와라 두공장에서 사진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코니카에서는 생산량 증대와 환경적인 문제 등을 고려, 새로운 지역에 필름공장 건설을 모색중인데, 이는 아시안시장에서 컬러필름 공급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니카는 새로운 공장 설립에 5백억엔에서 7백억엔을 투자, 내년에 공장건설을 착수하고 2천년경에 완공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참조: 월간 'Photo International', '97년 6월호.

올림푸스, 아시아지역에 디지털카메라 판매 착수

올림푸스사는 최근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한 디지털카메라 판매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의 대리점과 차별화를 기한 신제품판매 위주의 대리점을 개점, 디지털카메라 판매를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올림푸스사는 지금까지 디지털카메라를 아시아지



7월 리포트

역을 제외한 유럽 또는 미국에서 판매를 해왔으며, 이번에는 아시아지역을 주 대리점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림푸스社は 디지털카메라를 합작판매의 새 상품으로 아시아지역시장에서의 판매와 서비스를 위한 지원자의 판매전략을 상세히 세워왔다.

올림푸스社の 판매목표량은 아시아 전체 디지털카메라 판매량의 10%의 달하는 것이며 또한 아시안지역의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림푸스社の 올 3월, 디지털 카메라판매량은 일본시

장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올림푸스社の 월간 디지털카메라 생산량은 3만대에 달하며 향후 연간 30만대의 생산량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참조) 월간 「Photo International」 '97년 7월호

휴식공간

코닥포토 살롱 전시일정

서울 종로구 연지동 연강빌딩 1층에 위치한 코닥포토살롱의 7·8월 전시일정이 발표되었다.
전시일정관련 문의는 코닥포토살롱 02)708-5549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전 시 일 정	전 시 명	작 가
7.2~7.8	신체와 형태전	전 홍 수
7.9~7.15	제2회 동물전 "푸스포르스"	전 홍 수 외
7.30~8.5	인하대 이미지 정가작품전	장 호 준 외
8.6~8.12	카파광고사진학원 졸업전	학 생 원
8.13~8.19	중앙대 김수미 추모전	김 수 미
8.20~8.26	신구 도시영상연구회	미 현 석 외
8.27~9.2	신구전문대 MUP 그룹전	임 재 광 외